

## 구윤철 부총리,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금융기관 최고위급 면담

- 홍콩상하이은행(HSBC) 및 슈로더(Schroders) 대표(Group CEO)와 개별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개혁 진전, 인공지능(AI)·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에 대한 협력·투자 확대 의지 표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18(월) 영국 런던에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글로벌 은행 및 자산운용사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슈로더(Schroders)의 최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 및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 ① 홍콩상하이은행(HSBC) : 조지 엘헤더리(Georges Elhedery) 대표(Group CEO)
- ② 슈로더(Schroders) : 리차드 올드필드(Richard Oldfield) 대표(Group CEO)

### 【참고】 양자면담 기관 개요

- ✓ **HSBC** : 1865년 홍콩에서 출범한 글로벌 은행그룹으로 튼튼한 아시아 영업 기반과 국경간 결제·무역금융 등에 강점이 있으며 `25말 자산규모 약 2.99조 달러
- ✓ **슈로더** : 1804년 영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액티브 운용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25말 자산규모 약 1.1조 달러

### 【 ① 조지 엘헤더리 HSBC 대표 면담 결과 】

구 부총리는 조지 엘헤더리 HSBC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국 외환·자본시장 개혁 조치와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외환·자본시장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외환시장 개혁 과제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HSBC와 같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한국의 선진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피지컬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국은 AI 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HSBC와 같은 글로벌 핵심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지 엘헤더리 HSBC 대표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환·자본시장 개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한국이 금융시장의 개방성과 국제적 연계성을 심화시키며 글로벌 경제에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HSBC는 1897년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어온 만큼, AI 인프라, 에너지 전환, 첨단산업 등 한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국제적 진출 확대를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② 리차드 올드필드 슈로더 대표 면담 결과 】

구 부총리는 리차드 올드필드 슈로더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국 자본시장 개혁 성과와 AI·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한 결과, 코스피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달성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신뢰가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단기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지속적인 과제로 인식하는 만큼, 슈로더와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의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AI·첨단산업 등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에서 슈로더와 같이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차드 올드필드 슈로더 대표는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증시 체질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핵심적인 구조적 변화라고 언급하는 한편, 슈로더 역시 한국 정부의 개혁 의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개혁이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재생에너지·에너지 전환 인프라·벤처캐피털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서기관 이용준 (cjeye86@korea.kr)
			사무관 정민중 (belljeong@korea.kr)

